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LOVE IN ROW 27

가제 : 27열 사랑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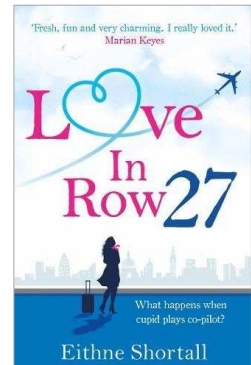
저자 : Eithne Shortall

출판사: Corvus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참신하고 재미 있고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 – 소설가 마리안 케예스(Marian Keyes)

* “쉬는 날 읽기에 딱 좋은 로맨스” - 「RED Magazine」

비행기나 열차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영화며 소설,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러브스토리다. 뻔히 앞으로의 전개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런 사랑이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잡아 끄는 건 ‘우연한 만남’이 주는 짜릿함,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정말 존재하는 것만 같은 신기한 기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이 아닌 사람이 상당히 철저한 계획에 따라 만든 필연적인 기회라면? 공항 카운터에서 일하는 코라는 우연을 가장해 사랑을 성사시키는 현대판 큐피드의 역할을 자처한다. 다른 사람의 삶, 그것도 사랑과 연애에 개입하는 삶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당사자는 꿈에도 모르는 채 진행되는 흥미진진한 코라의 공중 소개팅이 시작된다.

아일랜드의 작은 항공사 에어 링구스에서 근무하는 스물여덟 살 코라. 그녀가 위스키만큼 좋아하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의 삶이다.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주변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몇 시간 뒤 혹은 몇 년 뒤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코라의 취미다. 그 상상의 재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대화를 나누는 상대다. 코라가 처음 런던 히스로 공항 한 켠의 작은 카운터 뒤에 앉게 된 건 뜻밖의 기회 덕분이었다. 보안 문제가 생기면서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1년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반드시 줄을 서서 일일이 신분증을 내고 임의로 배정된 좌석을 받게 된 것이다. 추가 인력으로 뽑힌 코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 변화에 잔뜩 짜증스러운 얼굴로 카운터에 여권을 내미는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만나

던 중,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좌석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대신 잘 어울리는 남녀가 나란히 앉도록 슬쩍 자신이 개입한다면? 그리하여 비행기 27열은 코라가 철저한 조사와 계획으로 새로운 사랑의 탄생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되었다. 지상의 큐피드가 코라라면 절친한 동료이자 공중의 큐피드를 담당하는 친구 낸시가 기내에서 코라가 짝지은 두 사람에게 무료 음료를 건네고 대화를 틀 기회를 일부러 만드는 등 로맨스를 마구 부추기는 역할을 맡았다.

베를린에서 2년간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이별로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온 코라는 엄마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에어 링구스에 임시직으로 입사했다. 사실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사랑의 중매인 역할은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이별의 고통과 나날이 상태가 나빠지는 엄마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진 코라의 마음을 달래는 특효약이 된다. 예약 승객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미리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숨은 조력자인 동생이 만든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미혼 여부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코라는 나이, 성격, 직업, 취미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서로 잘 맞는 미혼 남녀를 나란히 옆에 앉힌다. 낸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두 사람의 은밀한 소개팅은 꽤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말 자리가 무작위 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영국과 아일랜드를 수시로 오가는 단골손님들은 눈치챌 수도 있지 않을까? 회를 거듭할수록 코라는 짝지어주는 역할에 너무 깊이 심취하고, 친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길 바라는 낸시가 공항 보안 직원 찰리와 코라의 '우연한' 만남을 혼자 계획하면서 이야기는 꼬이기 시작한다. 결국 남들 짝지어주느라 바로 눈 앞에 나타난 사랑도 잡지 못하는 코라, 남의 사랑에 관여하느라 현실 우정에 금이 갈 위기까지 처한다. 27열 사랑 실험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 손발도 주고받는 농담도 척척 잘 맞는 낸시와 코라의 코믹한 대화들이 유쾌함을 더하는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트네 쇼톨(Eithne Shortall)은 더블린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현재 「선데이 타임스」에서 예술 분야 기자로 일하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WATER CURE

가제 : 물의 치유

저자 : Sophie Mackintosh

출판사: Hamish Hamilton

발행일: 2018년 7월

분량 : -

장르 : 소설/ SF 로맨스



*** 출판사 일곱 곳이 참여한 경매를 통해 출판 계약 체결**

*** 사랑에 담긴 잔인성,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그린 데뷔소설**

여자가 살아가기엔 너무 위험한 세상, 감정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대로 통제할 줄 모르는 여자들이 위험한 남자들에게 휘둘리고 고통 받을 뿐인 세상에서 소중한 세 딸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는 어느 외딴 바닷가에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된 두 사람은 땅에 높다란 철조망을 세우고 바다에도 부표를 띄워 경계를 뚜렷하게 표시하고 리아, 그레이스, 스카이, 세 아이들을 바깥 세상과 철저히 차단된 그 안에서 키웠다. 뾰족한 철조망은 다른 세상, 특히 남자의 접근을 막는 방벽이기도 했지만 이쪽 세상에서의 탈출을 막는 철창이기도 했다. 세상에서 큰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배를 타고 이 고립된 왕국을 가끔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 왕비는 짜디짠 특별한 물로 이들의 몸과 마음에 갇힌 고통을 씻어주었고, 세 아이들은 멀찍이서 여행자이자 요양자인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왕국을 찾아오는 여성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소녀들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떠오른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닐까?” 이젠 엄마 아빠의 이야기처럼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왕국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왕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왕비도, 세 딸 중 누구도 보지 못한 곳에서 홀로 조용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을 거둔 왕은 피투성이가 된 신발만 남겼다. 그리고 왕의 존재가 사라진 뒤 한층 고립된 왕국에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왕과 왕비는 ‘물의 치유’라는 특별한 치유법을 개발했다. 사람이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리아와 그레이스는 막내 스카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왕국을 찾아온 여성들이 엄마의 이끌림을 받아 이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줄로 늘어선 물잔을 하나씩 비워내며 양동이에 토하고 또 토하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쉬던 사람들. ‘물의 치유’뿐만 아니라, 부모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끔찍한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해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 이상 징후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방법,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는 법, 그리고 바다에 떠오르는 유령과 맞서는 법, 세 소녀는 늘 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남자 때문에 고통에 찌들리다 못해 왕국을 찾아오는 여자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두려움을 증명해주는 듯했다. 이

들의 발길이 뜸해진 건 분명 세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일 텐데, 그 변화는 어떤 방향일까? 드디어 여자들도 고통을 덜 받게 된 것일까, 아예 모두 사라져버릴 정도로 완전히 악화된 것일까? 자신들만의 관습, 특별한 의식 속에 오랜 세월 세상과 떨어져 살던 왕국에 그 변화를 알려준 건 뜻밖에도 왕과 왕비가 그토록 막아내려 했던 존재들, 남성들이었다. 왕이 숨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명의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에 나타난 것이다. 리아, 그레이스, 스카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이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이 배우고, 그토록 갖고 닦은 '긴급 상황' 대비책은 모두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한 왕과 왕비가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자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남자가 아닌, 소녀들이 예상치도 못한 것, 사랑의 감정이 무엇보다 위험한 건 아닐까?

세 소녀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지식, 각자의 상처, 욕망을 지닌 세 남자는 세심하고 정교하게 유지되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 왕은 세 딸에게 남자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수십 번 이야기했었다. 늘 작은 칼을 지니고 다닐 것, 그러나 바로 칼을 빼 들지 말고 다정한 태도를 보일 것, 그들이 가슴 속의 모든 절망을 잊게 만들 만큼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것. 하지만 결국 세 사람은 이들과 사랑에 빠지고 만다. 사랑이 병이라면, '물의 치유'법으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독특한 배경과 스토리가 첫 부분부터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야기는 여성이 느끼는 사랑의 고통을 시적이면서도 다소 으스스하고 혼란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며 세 소녀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사건을 그린다.

<저자 소개>

소피 매킨토시(Sophie Mackintosh)는 1988년생으로 「Granta Magazine」, 「The White Review」, 「TANK Magazine」에 소설과 시를 기고해 왔다. 단편소설 「Grace」로 2016년 '화이트 리뷰 단편소설 상(The White Review Short Story Prize)'을 수상하고 「The Running Ones」로 같은 해 비라고/스타일리스트 단편 소설 컨테스트(Virago/Stylist Short Story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목 : LIVIA LONE

가제 : 리비아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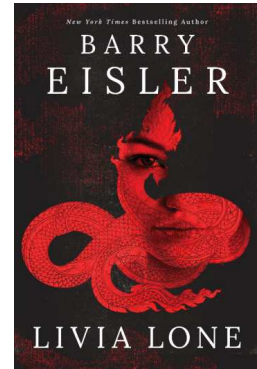
저자 : Barry Eisler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범죄



*** 2016년 아마존 베스트 북, 커커스 리뷰 베스트 소설로 선정**

*** “완벽한 일류 스릴러. 장면마다 생생한 감정을 고집어내는 소설” – 뉴욕 타임스 북 리뷰**

*** “복잡하고 안쓰러운 캐릭터인 주인공 리비아는 누아르의 색채가 가미된 하드보일드 액션 소설 독자들에게 캐롤 오코넬의 캐시 말로리 같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안고 복수를 꿈꾸는 경찰을 떠올리게 한다.” – 북 리스트**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질서가 희생자에게 정의를 지켜주지 못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지킨다.” 리비아 론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은 단순하고 단호하다. 아동 성 범죄자들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는 시애틀 경찰인 리비아는 일단 최선을 다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짐승만도 못한 범죄자들의 죄를 묻되,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빠져나가는 놈들이나 춤춤해야 할 법에 가끔 구멍이 뚫린 듯한 허술한 면이 드러나 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불상사가 생길 때면 직접 정의를 구현한다. 인간 쓰레기를 처단할 수 있다면 그가 가장 나악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자 역할도 하고 살인도 불사하는 리비아, ‘텍스터’처럼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녀에게는 절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고통이 문신처럼 남아 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람, 구해내야만 하는 동생도 있다.

리비아라 ‘라비’라고 불리던 시절, 열세 살 어린 소녀였던 그때 살았던 곳은 미국이 아닌 태국이었다. 두 살 어린 동생 제이슨과 밖에서 놀고 있던 어느 날, 흰색 밴 한 대가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치렁치렁 장신구를 매단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왠지 불길함을 느낀 라비의 직감은 너무나 정확했다. 억센 남자들 팔에 이끌려 차에 억지로 태워지는 동안,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모님이 직접, 라비와 제이슨을 사람을 사고파는 자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믿기 힘든 사실은 두 자매에게 이후 찾아온 거센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 차에 타고 있던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두 사람은 커다란 배에 태워진다. 흉악한 남자들의 무자비한 성희롱이 시작되고, 라비는 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제이슨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열세 살 소녀의 미친듯한 저항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동생과 떨어진 라비는 미국에 도착한 배에서 누군가의 집으로 입양된다. 아이다호 주의 고급 주택가에 사는 프레드 론과 그의 아내. 이들의 딸이 되어 ‘리비아 론’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라비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과 함께, 헤어진 동생을 반드시 찾고 말리라 결심한다. 하지

만 그 희망도, 결심도 쉽사리 리비아의 것이 되지는 않았다.

자상하고 따뜻한 줄 알았던 양아버지가 리비아를 입양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가 원하는 딸이 아니라 성 노예.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던 십대 시절 리비아를 살게 한 건 어떻게든 탈출해서 제이슨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학교에서 만난 친구 덕분에 알게 된 생존 기술이었다.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늘 놀림을 받던 친구 셴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을 대차게 물리치고, 그 모습을 보며 리비아는 한 없이 당하기만 하는 나약한 희생자의 삶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한다. 유도, 주짓수 등 온갖 무술을 섭렵한 리비아는 음흉한 양아버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경찰이 된다. 자신이 당한 일들, 그리고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제이슨이 당한 일들을 마음에 새긴 채 수많은 성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리비아는 자신이 법적인 방법은 물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을 처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 이제 리비아에게 남은 목표는 하나, 제이슨을 찾고 두 사람을 팔아 넘긴 자들을 색출해서 마지막 복수를 하는 것이다.

수 년째 제이슨의 행방을 찾던 리비아는 마침내 단서를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이 찾던 인신 매매 집단의 섬뜩한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한다. 양아버지 프레드 론의 형이자 상원의원이 개입된 거대한 집단이 그 더러운 범죄의 뿌리로 밝혀지고, 목숨 걸며 의원을 지키는 그의 심복이자 잔혹한 해결사 ‘스컬 페이스’가 나타나면서 리비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 겹겹이 덮인 진실, 거대한 음모와 맞서 어두운 기억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홀로 싸우는 매력적인 여주인공, 리비아의 사투를 스릴 넘치게 그린 생생한 범죄 스릴러로 저자가 시작한 새로운 시리즈의 첫 권이다. 리비아의 과거와 현재가 ‘그때’와 ‘지금’으로 구분되어 60회 이상 번갈아 가며 독자들을 서서히 더 깊은 사연 속으로 안내한다.

<저자 소개>

배리 에이슬러(Barry Eisler)는 3년간 CIA 비밀공작원으로 일한 후 기술 분야 변호사 일하다 실리콘 밸리와 일본에서 운영되는 스타트업 기업 대표가 되었다. 이후 베스트셀러 『The Detachment』 등 여러 편의 스릴러 소설을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제목 : TRULY EVIL

가제 : 진짜 악마

저자 : Mark Hardie

출판사: Sphere

발행일: 2017년 8월 10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 데뷔소설 『**BURNED AND BROKEN**』으로 “충격적일 정도로 감명 깊은 책 - 타임(*The Times*)” 등 이라는 찬사를 받은 재능 있는 작가의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 * 과거에 묻힌 비밀, 현재 벌어진 범죄가 꼬이고 엉키면서 드러나는 진실, 패트릭 기브니(*Patricia Gibney*)의 『*The Missing Ones*』, 레이첼 애봇(*Rachel Abbott*)의 『*The Sixth Window*』에 비견되는 세련된 문체의 스릴러

영국 사우스엔드를 배경으로 경찰의 수상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친 범죄 소설 『**BURNED AND BROKEN**』에서 처음 등장한 피어슨 형사와 러셀 형사에게 두 번째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미 첫 권에서 살인사건 수사 과정을 두 인물을 통해 생생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시리즈를 예견한 ‘피어슨과 러셀’ 시리즈 2권은 “모두가 비밀을 숨긴 것 같은 의혹이 들 때 살인자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라는 부제와 함께 시작된다. 동틀 무렵 해변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금세 밝혀진 이 여성의 숨겨진 실체부터가 두터운 비밀에 둘러싸인 자들과 두 형사의 힘겨운 싸움을 예고한다.

레이첼이라 불리던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새벽부터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선 어느 노인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직후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시신을 보고 바로 목격자에게 향한 피어슨은 어둑한 오솔길과 인적이 드문 숲이 곳곳에 형성된 이 잉글랜드에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런 시신을 과연 얼마나 놓치고 지나갈까 영뚱한 생각에 잠시 잠겼다. 나라에서 이들에게 포상금이 라도 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노인은 어느 때처럼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온 여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신고했다고 피어슨에게 다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 급파된 병리학 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피어슨에게 전한다. 검은색 긴 머리카락, 물에 젖은 회색 상의 아래로 흰히 비치는 검은색 브라와 아주 짧은 미니 스커트, 발에 신겨진 부츠까지 영락없는 젊은 여성인 줄 알았던 이 시신은 남자였다. 남성의 생식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생물학적으로 100 퍼센트 남자로 밝혀진 것이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이미 언론이 떠들썩한 상황이라, 수사 팀은 일단 시신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대외적으로는 ‘신원미상의 젊은 여성 시신’으로 입을 맞추기로 한다.

에섹스 주 중대사건 팀에 함께 소속된 프랭크 피어슨과 컷 러셀 형사는 시작부터 어딘가 요상한 사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오랫동안 레이첼과 연

락을 두절하고 살았던 부친이 얼마 전부터 그녀를 다급히 찾기 시작한 정황이 발견되고, 죽은 레이첼이 누군가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됐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런데 두 형사가 만난 사람들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가득하다. 오랜 형사생활의 직감상, 두 사람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포착한다. 계속 수사를 벌이던 두 사람은 수십 년 전에 모든 면에서 레이첼의 죽음과 비슷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정보를 획득한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까? 피어슨과 러셀 형사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닮은 옛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무려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아주 세밀하고 교묘하게 형성된 거짓말의 덮개들이 발견된다.

소설은 레이첼의 시신이 발견된 날부터 하나씩 단서를 찾아 실마리를 풀어가는 두 형사의 수사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는 한편, 영문 모를 어느 두 사람의 인터뷰 기록이 그 사이사이에 제시된다. ‘피험자’로 지칭되는 사람과 그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기록은 매번 피험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관한 관찰 결과가 서두에 등장한다. ‘반응이 거의 없고 질문을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반복해서 제시해야 함. 답변은 불안정한 목소리로 주저하듯 나오고, 말투는 억양에 변화가 없음. 답을 하는 중간중간 긴 침묵이 이어짐. 수시로 흥분하고 혼란스러워 함.’ 이와 같은 기록과 함께, 피험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심지어 이름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매번 정해진 질문을 거의 기계적으로 이어가고, 피험자는 차츰 안정을 찾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자신이 커튼이 쳐진 어두컴컴한 방에서 병원 침대 같은 곳에 누워서 지내고 있다는 것, 바깥에는 차 소리가 들리고 바늘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왜 인터뷰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절규에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을까? 피험자는 환자일까,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 있는 사람일까? 두 형사의 수사 과정 사이사이에 제시되는 이 수상한 인터뷰 기록이 갈수록 호기심을 더하는 가운데, 과거와 현재 모든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숨기려 안간힘을 써온 비밀이 마침내 하나의 접점에서 만난다.

큰 화제를 모은 1권에 이어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줄 섬세하고 스릴 넘치는 범죄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크 하디(Mark Hardie)는 2002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방송대학에서 글쓰기 코스를 마치고 데뷔작 『BURNED AND BROKEN』을 발표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NON- FICTION

제목 : EAST WEST STREET

가제 : 이스트 웨스트 스트리트

(부제: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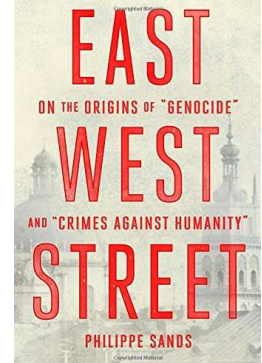
저자 : Philippe Sands

출판사: Weidenfeld(UK)/Knopf(US)

발행일: 2017년 3월 31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역사/회고록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판권계약 체결

* **2017** 영국 도서상(**THE BRITISH BOOK AWARDS**) 비소설 부문 올해의 책, **2016년 BAILLIE GIFFORD PRIZE, THE JQ- WINGATE LITERARY PRIZE** 수상, 「선데이 타임스」 **10대** 베스트셀러

*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중요한 책. 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세히 보여주는 부분이 매우 놀라웠고 정신을 끌어 당기는 활기찬 저자의 글은 일류 스릴러 소설만큼 촘촘하다” – 가디언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가 참여한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행해진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스물한 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열린 국제 군사재판이었다. 현재 영국에서 법대 교수이자 국제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우크라이나 르피프 대학교로부터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화와 역사가 짙은 동유럽으로 향한다. 유대인인 외조부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서 저자는 나치 점령 이후 외가의 탈출 경로를 쫓던 중,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제 인권법의 뿌리가 바로 뉘른베르크 재판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파리라 불리는 르피프의 같은 대학교, 같은 교수 밑에서 법을 공부하고 똑같이 그 역사적 재판에 참여했지만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라는 상반된 견해로 맞섰던 두 명의 법학자, 허쉬 라우터파하트와 라파엘 렘킨의 발자취를 발견한 것이다. 저자는 나치의 일원으로 무고한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이들에게 지워야 할 죄의 무게를 가능하는 중요한 잣대, 이 두 가지 개념이 시작된 두 법학자의 첨예한 주장을 상세히 파헤치고, 무수한 희생자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던 가슴 아픈 가족의 역사를 이 책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덮여 있던 과거의 비밀을 한발한발 찾아가는 감동적인 추적 과정과 전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법률적 개념의 역사를 분석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아주 미묘한 두 개념은, 과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개인의 죄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일로 봐야 할 것이냐 하

는 점이었다. 폴란드 출신의 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캠브리지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허쉬 라우터파하트는 나치의 잔혹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라 칭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일로 보았다. 반면 듀크 대학의 법학교수인 라파엘 램킨은 인류적 범죄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로 피고인이 거부할 능력이 없으며 국가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행해진 ‘대량학살’이라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념의 충돌은 재판에 참여한 4개국 검사들 간의 폭넓은 논쟁으로 이어졌고, 피고인 중 한 사람인 한스 프랑크가 라우터파하트와 램킨, 두 사람의 가족의 목숨을 직접 빼앗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의 열기는 한층 더 강렬해진다. 저자는 편지와 사진,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세 인물의 삶을 차례로 조명하는 한편 폴란드에서 시작된 외조부와 외가 식구들의 고된 이동 경로와 당시의 상황을 하나씩 발견해 간다. 불편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흔적을 법률적 해석이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킨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한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초대장

1. 레온
2. 라우터파하트
3. 탈니 양
4. 램킨
5. 나비넥타이를 맨 남자
6. 프랭크
7. 헤르 슈타이너
8. 뉘른베르크
9. 헤르타
10. 판결

맺음말: 숲 속

<저자 소개>

필립 샌즈(Philippe Sands)는 국제 변호사이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콩고,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이라크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진행된 중요한 재판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등에 자주 글을 기고해 왔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다수 출연한 경력이 있다. 저서는 『LAWLESS WORLD』, 『TORTURE TEAM』 등이 있다.

제목 : OUT OF THIN AIR

가제 : 연기처럼 사라진 사람들

(부제 : 아이슬란드에서 벌어진 불가능한 살인과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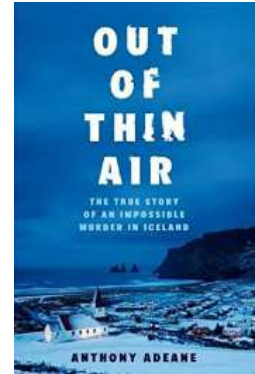
저자 : Anthony Adeane

출판사 riverrun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범죄



* 동일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올 여름 **BBC**, 가을에는 넷플릭스에 방영될 예정

*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로 기록된 두 살인 사건에 얽힌 음모와 충격적인 진실

새하얀 눈과 얼음이 떠오르는 바이킹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민간 설화가 가득한 곳이자 인구의 80 퍼센트 이상이 엘프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으로 확인된 매력적인 나라이다. 흉악 범죄라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1974년, 두 건의 이상한 실종 사건이 벌어진다. 10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사라진 두 남자는 6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듯 했으나, 1년도 더 지난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젊고 호기로운 어느 히피 집단에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서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범의 철조망 속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수사의 실체를 낱알이 드러낸 계기가 되고 만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그리고 흔적 하나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두 남자와 40여 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 저자는 이 안타깝고도 흥미진진한 과정을 이 책에서 전한다. 2014년부터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 이 이야기는 올 여름과 가을, TV로도 방영될 예정이며 캐나다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핫독스(Hot Docs)’에서 선 공개된 뒤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974년 1월, 길고 짙은 색 머리카락에 피부색이 도자기처럼 뽀얀 열여덟 살 구드문드르는 레이캬비크 근처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평소 워낙 술을 잘 마시는 그는 이 날도 친구들과 흥뻑 취해 춤을 추며 신나게 놀다가 그리 늦지 않은 시각에 나이트클럽을 나섰다. 새벽 2시에는 어떤 남자와 함께 근처 거리를 걷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구드문드르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에르피너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케플라비크의 어느 카페로 향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다시 집으로 갔고, 아침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아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고, 기에르피너 역시 연기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처음 갔던 카페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기에르피너의 자동차는 문도 잠겨 있지 않고 차 열쇠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고요했던 온 나라가 불안에 휩싸일 만한 이상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1년여 뒤, 횡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두 사람을 조사하던 중 다분히 충동적으로 첫 실종자인 구드문드르의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준 경찰은 놀

라운 답변을 듣는다. 나이트클럽을 나와 그가 사라진 그날 밤,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에 느닷없이 새로운 물꼬가 트인 순간이었다. 경찰은 구드문드르와 함께 기에르피너의 실종도 이들과 관련성이 없는지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이 둘을 비롯한 여섯 명의 히피를 잡아들인다. 수 개월에 걸친 수사와 취조 끝에 이들은 두 실종자를 살해한 혐의로 짧게는 3년, 길게는 종신형까지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나空空 감춰진 진실이 교도소를 뚫고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것,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환경 속에 내몰려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40여 년이 지난 후,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저자는 아이슬란드라는 독특한 배경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누구의 저지도 받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는지 조사한다. 여러 측면에서 아이슬란드 역사상 길이 남을 범죄의 기록이자 이곳의 특별한 문화를 함께 조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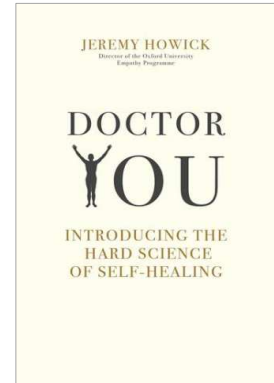
<목차>

1. 연기처럼 사라지다
2. 에를라와 사에바
3. 폭풍 속에 들려온 속삭임
4. 나이트클럽과 정치인
5. 머리, 머리 전체
6. 후유증
7. 살인의 기억
8. 숙적
9. 뺑소니

<저자 소개>

앤소니 아딘(Anthony Adeane)은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현재는 런던 프로덕션 업체 'Mosaic Films'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제목 : DOCTOR YOU
가제 : 우리 몸이 최고의 의사다
저자 : Jeremy Howick
출판사: Coronet
발행일: 2017년 10월 1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 * “저자는 자연치유의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다. 어서 이 책을 읽어보길!” – 디팍 초프라
- * “건강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고 현대사회의 건강관리 방식은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The Science of Happily Ever After*』의 저자 타이 타시로
- * “명쾌한 과학적 근거로 몸과 마음이 연계되어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 『*Addictive Behaviour – the Struggle for Freedom*』의 저자 라울 골드버그

미국 전체 인구의 20 퍼센트, 영국 노년층의 절반, 캐나다 노년층의 3분의 2가 매일 최소 다섯 가지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맞춰 입에 약을 털어 넣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병과도 싸우고, 이 수많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겨우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열명 중 한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공부 시간에 일정 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메탐페타민이 함유된 약을 처방 받는다. 현대 의학은 그야말로 약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과연 이 수많은 약들이 다 효과가 있을까? 수시로 제기되는 아이러니한 의문 중 하나다.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으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자꾸 늘어만 갈까? 최첨단 기술과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현대의학의 성과에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의학은 발전하지만 의료계가 이야기하듯 과거보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여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건강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위약 연구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약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타고난 치유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면 막대한 의료비용과 그보다 심각한 약물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자는 왜 이것이 허황된 믿음이 아닌 실제 가능한 일인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낱알이 보여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의료비용과 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대의학의 구조는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이롭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현대 의학적 원리가 인체가 지닌 자연치유력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약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통증을 가라 앉히고,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관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심리 상담을 받은 것처럼 우울증을 해소하는 약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엔도르핀’의 어원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이라는 것도 인체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러한 자연 치유력과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저자는 최신 연구로 밝혀진 수많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약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 약을 이용해야 할 때와 우리 몸의 치유력에 믿고 맡겨야 할 때를 구분하는 방법,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해롭다고 해서 일체 약을 끊어버리거나 대안요법이 무조건 건강에 이롭다고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 제시된다.

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광고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넘쳐나는 약

1부: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증거(그 능력을 확인하는 법)

1. 우리 모두 놀라운 몸을 가지고 있다
2. 어떤 증거를 믿어야 할까
3.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에 주의하라
4. 위약의 강력한 효과

2부: 투쟁과 도주, 영양과 양육

5. 스트레스 반응
6. 비틀스가 요가 수련자로부터 휴식을 배운 사연
7. 결코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3부: 내면의 치유 능력

8. 긍정적인 생각의 힘
9. 조건화: 내면의 악국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하 생략, 총 5부,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레미 호윅(Jeremy Howick)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로 60편이 넘는 논문과 교과서를 썼다. 위약의 효과를 밝힌 세계적인 연구자로 「타임」지, 「워싱턴 포스트」, BBC 등에 연구 업적이 소개됐다.

제목: THE LEADER'S GUIDE TO EMOTIONAL AGILITY

가제: 리더를 위한 감정적 민첩성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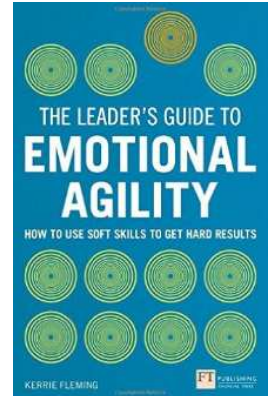
저자: Kerrie Fleming

출판사: FT Publishing International

발행일: 2015년 12월 9일

분량: 216 페이지

장르: 경영



- * **“행동이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리더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 사치 앤 사치(Saatchi & Saatchi) 부대표 리처드 히트너**
- * **“관리자가 자신의 감정은 물론 구성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 ‘정서지능 기술그룹(Emotional Intelligence Skills Group)’ 공동설립자 데이빗 R. 카루소**

감정적 민첩성이라는 개념은 2013년 수전 데이비드와 크리스티나 콘글레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처음 사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수전 데이비드의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 개념은 ‘(긍정적, 부정적) 내적 경험을 인지하고 보다 깊이 있게,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정서 지능’과 비슷한 이 기능은 여러 연구를 통해 개개인의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업계에서는 창의력과 성취도 향상, 혁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밝혀졌다. 저자는 아직까지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감정적 민첩성과 감정 지능을 리더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업무 성과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팀 구성원, 팀 전체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다양한 관리 사례와 연구 결과, 저자가 직접 전 세계 산업체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교훈을 토대로 감정적 민첩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제시된다. 1부에서는 정서적 민첩성이 뛰어난 리더가 되는 방법을 일곱 단계로 나누어 차례로 설명한다. 리더의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배울 수 있다. 2부에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감정적 민첩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업무 참여율이 저조한 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하도록 할 때, 창의력과 혁신을 높이려고 할 때, 리더로서의 능력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때와 같은 중요한 업무에 감정적 민첩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자기 발견이라는 필수적인 자기 분석을 거쳐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 올바르게 깨닫는 과정이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무 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먼저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눈 앞에 산적한 과제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올바른 자기 인식은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 인식의 범위에는 자신과 개개인의 객관적 능력과 함께 ‘감정’이 포함된다. 감정은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할 때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원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 감정적 민첩성을 활용한 리더의 역할을 상세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와 연습 방법이 두루 제시된 알찬 경영서다.

<목차>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 머리말

1부. 감정적 민첩성을 키우는 7단계

- 1단계. 당신의 진짜 모습
- 2단계.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기분이 왜 중요할까?
- 3단계. 다른 사람 인지하기
- 4단계. 감정 이해하기
- 5단계. 자기 감정 다스리기
- 6단계. 타인의 감정 다스리기
- 7단계. 인식하는 법 깨닫기

2부. 감정적 민첩성 활용하기

- 8. 까다로운 성과 평가
- 9. 팀원들의 참여 독려
- 10. 창의력과 혁신 강화
- 11. 변화 관리
- 12. 7단계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법

결론

<저자 소개>

케리 플레밍(Kerrie Fleming)은 정서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애슈리지 리더십 센터’의 대표이자 리더십 부문 총괄을 맡고 있다. 미국 외무부,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등 영국과 유럽, 중동 지역 국가기관과 기업에 경영개발 프로그램과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해 왔다.

제목 : MY LOVELY WIFE IN THE PSYCH WARD

가제 : 정신병원에 들어간 내 사랑하는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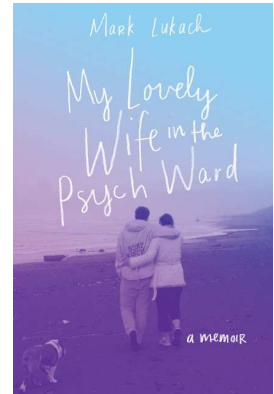
저자 : Mark Lukach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독일, 영국 판권 계약 체결**

*** 「퍼시픽 스탠다드 매거진」 2015년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힌 이야기**

*** “사랑과 정신질환, 인내,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서정적으로 그린 인상적인 회고록”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 신경과학자, 배우 마임 비아릭**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거의 한눈에 반한 두 남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님은 점들부터 시작해서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은 만남이 이어지며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마침내 두 사람은 부부가 된다. 그저 평범한 러브스토리 같은 이 이야기는 그러나 아내 줄리아의 정신이 허물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그래서 그 병에 잠식당한 사람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정신질환의 엄청난 영향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글이 한 권의 에세이로 완성됐다. 「뉴욕타임스」 “모던 러브” 칼럼에 처음 기고하며 세상에 처음 알려진 저자와 아내 줄리아의 이야기는 「퍼시픽 스탠다드 매거진」에도 게재되었고 2015년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힐 만큼 독자,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보통 정신질환 투병기는 병을 앓은 당사자가 쓰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편으로,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리고 간병인으로 보이지 않는 병과 싸우는 아내를 지키고 돌봐온 저자의 기록에는 그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와 엄청난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희망과 사랑, 그럼에도 가족이기에 기쁜 희열과 즐거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인 줄리아는 마케팅 분야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에 졸업 전부터 인턴을 준비했다. 영리하고 뭐든 잘 해내는 성격 탓에 학업성적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었다. 저자는 신입생 때 처음 만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연인이 된 줄리아의 곁을 줄곧 지키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졸업 전, 중요한 과제를 하던 줄리아가 컴퓨터 고장으로 작업하던 것을 다 날릴 지경에 처했을 때 드러낸 낯선 모습, 미친 듯이 폭발해버린 감정에는 그저 초조함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하기엔 과한 무언가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최초의 정신적 발작이었다.

서로 꿈꾸던 곳에 직장을 얻고 차근차근 사회인이 된 두 사람은 스물네 살에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해변과 가까운 곳에 근사한 신혼 집을 마련했다. 행복한 나날들 속에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이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직후 줄리아에게 두 번째 발작이 찾아왔다. 직장을 새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잘 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불

안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 우울한 감정에 잡아 먹혀 삶 전체를 비관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발병해버린 정신병으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어느 날은 생생하고 활력이 넘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굴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면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자살할 기회만 노리는 줄리아의 모습을 저자는 모두 지켜봐야 했다. 마침내 회복된 줄리아는 사랑하는 아들 조나스를 낳았지만 얼마 후 또 다시 정신발작이 시작됐다. 두 사람이 남들보다 일찍 일거온 모든 것, 너무 완벽해서 흠 하나 없던 삶에 서서히 균열이 번져갔다.

한 없이 단단하면서도 쉽게 깨지는 인간의 정신, 그러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끈기와 용기를 한꺼번에 경험한 저자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아내와 아들 곁에서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챙겨야 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정신질환과의 결말을 알 수 없는 싸움을 벌인 험난했던 과정, 가족과 사랑의 믿음과 신뢰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커다란 에너지를 감동적으로 그린 에세이다.

<목차>

- 1장. 2000년 8월
- 2장. 2009년 7월
- 3장. 2009년 9월
- 4장. 2009년 10월
- 5장. 2010년 4월
- 6장. 2010년 8월
- 7장. 2011년 2월
- 8장. 2012년 10월
- 9장. 2012년 11월
- 10장. 2014년 10월
- 12장. 2014년 11월

<저자 소개>

마크 루카크(Mark Lukach)는 9학년 역사 교사이자 프리랜서 작가로 「뉴욕타임스」, 「애틀란틱」, 「퍼시픽 스탠다드」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BREAKING THROUGH

가제 : 돌파구는 있다

(부제 : 여성의 성공을 이끈 업체들의 이야기와 모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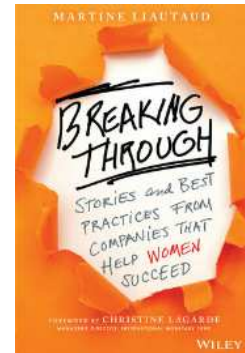
저자 : Martine Liautaud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4월 1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 **“여성 경영인이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리더십을 완성해간 과정을 멘토와 멘티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 –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 로버트 A. 버글만
- * **“에너지와 희망을 선사하는 책. 사업 성공이 성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용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 **‘Engie’ CEO** 이사벨 코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거의 전 분야의 상품에서 소비의 주축이다. 동시에 여성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떠올리고 추진하는 기업 성장의 엔진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여성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 즉 기업 경영인으로는 충분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성공한 기업인의 목록에 이름을 올린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 여성이 성공해야 모두가 성공한다는 모토로 여성 기업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답과 해결책을 찾아본다. 2010년부터 여성 기업가들에게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조언과 현대 사회에서 여성 비즈니스 리더로 균형 있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개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여성 비즈니스 멘토링 사업단’을 운영해온 저자는 그간 확보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이 특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한다. 저자가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 외에도 전 세계와 미국 여러 기업에서 운영된 비슷한 멘토링, 후원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놀라운 성과를 통해 저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멘토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여성 기업가가 미처 다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원만히 이끄는 귀중한 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물론 서유럽 지역에서도 산업계의 양성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중간 관리자 수준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 커다란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성의 능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자는 유독 일터에서 여성의 발목을 잡는 공통적인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사업적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이와 같은 목적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멘토와 멘

티 사이에 신뢰와 유대감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알려준다. 그 밖에 일반적인 업무 관리 목적으로 실시되는 기본 멘토링과 차별화된 전문 멘토링, 여성 기업가 교육과 여러 기업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산업계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강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아직 양성평등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경험의 지혜를 선사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그 긍정적 성과는 여성 기업인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 전체에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상세히 알려준다.

<목차>

서문

1부. 개관

1장. 여성과 새로운 경제

2장. 멘토와 후원: 성공의 열쇠

2부. 비즈니스 세계, 여성 리더들의 목소리

3장. 성공의 걸림돌과 극복 전략

4장. 글로벌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5장. 여성의 커리어 개발 전략

6장. 포괄적 리더십

7장. 여성의 경제계 지위 개선

8장. 여성에게 주어지는 장애물 극복하는 법

9장. 여성의 기업가 정신

3부. 멘토링과 후원 프로그램 설계 (10- 14장)

4부.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 사례 (15- 19장)

5부. 기업가가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 (20- 22장)

<저자 소개>

마틴 라우토드(Martine Liautaud)는 투자 상담가이자 기업가로 기업 인수합병과 재무 관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Liautaud et cie'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부터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는 전문 멘토링 업체 'Women Business Mentoring Initiative'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